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Marital Conflict in Old Age on Elderly Divorce and Impulse to Commit a Crime

강신성,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Sin-Sung Kang(kangss708@hanmail.net), Wang-Kyu Lim(wklim@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의 부부갈등요인(의사소통, 가정생활, 공격행동, 경제갈등)과 생태체계요인(개인, 가족, 사회)이 황혼이혼(이혼생각, 이혼시도)과 범죄충동(폭력, 자기중심성,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기혼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33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t-test, ANOVA, 위계적 회귀분석과 Scheffe test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이나 폭력적인 공격행동, 의사소통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갈등, 자기중심성충동이 높을수록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 생태체계,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 차이는 모든 분야(성별, 학력, 직업, 자녀동거여부, 종교,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중심어 : | 노년기 부부갈등 | 생태체계 | 황혼이혼 | 범죄충동 |

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that the factors(communication, domestic life, offensive action, economic problem) of marital conflicts of old age and ecological systems factors(individual, family, sociality) have a impact to the divorce of elderly(thoughts and attempts of divorce) and the impulse to commit a crime(violence, egoism, running away from home). The guinea pigs is 350 married people of ages greater than 55 in the capital area. The 338 collected data excluding incomplete 12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cheffe test with SPSS 18.0.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marital conflict and ecological systems have a severe impact to the divorce of elderly, the more the conflict of the domestic life and the offensive action, the conflict in communicative and economic problem are getting higher. Second, the marital conflict and ecological systems have a severe impact to the impulse to commit a crime, the more the conflict of a domestic life and the conflict caused by spouse's attack, the economic problem, the egotistic impulse are getting higher. Third, there are some statistically similar differences of all the parts(sex, academic ability, job, children coresidence, religion, physical condition, monthly average income) in the marital conflict by characteristic of sociology of population, ecological systems, the divorce of elderly and the impulse to commit a crime.

■ keyword : | Marital Conflicts in Old Age | Ecological Systems | Elderly Divorce | Impulse to Commit Crime |

I. 서론

오늘날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평균기대수명[1]은 2011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평균 81세(남자 77세, 여자 84세)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층의 황혼이혼과 범죄는 중요한 이슈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황혼이혼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2’ 자료[2]에 의하면, 2011년 전체 이혼 가구 중 24.8%로 1990년 5.3%에 비해 20여년 만에 황혼이혼 비율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노인범죄 또한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에 의하면 노인범죄 증가율이 전체 범죄 증가율의 5배를 웃돌며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1년 범죄자 중 60세 이상 노인은 6.3%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에서 오랫동안 표현되지 못한 결혼에 대한 실망감과 발생하는 제반문제 및 갈등들이 중년기의 결혼 불만족으로 고조되어 부부 간 거리감 및 소외형태로 표출됨을 증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년기 부부의 이혼의 증가는 부부갈등, 생태체계적 문제 이외에도 자녀와의 관계 악화, 돌봄 문제, 빈곤, 주거 문제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박탈감, 생활비 마련, 현실불만, 유희, 가정불화 등이 있으나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부부갈등과 가족 등의 주변체계의 불안정이며, 고령사회가 가속화될수록 황혼이혼과 노인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연구는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갈등, 성역할, 생태체계 등)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행동,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년기 부부갈등 요인과 생태체계 요인이 황혼이혼 뿐만 아니라 범죄충동으로 까지 연결되는 인과성을 감안할 때 학술적

논의가 시급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이혼과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가설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부갈등, 생태체계,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년기의 부부갈등과 생태체계는 범죄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노년기의 부부갈등과 생태체계는 황혼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의 친밀감, 커뮤니케이션 태도, 상호작용, 부부관계의 만족도 등과 함께 부부생활의 질을 반영하는 개념이다[3].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들은 부인에 대하여 지배적이고, 남편 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만, 가정의 전체적인 운영은 부인에게 위임하고 있고, 부인은 남편의 의사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기를 기대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이러한 가족에서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중심으로 결정하고 부인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부부갈등의 원인이 된다[4]. 노년기는 빈약한 수준의 경제적, 심리적 자원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복합적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할 시기로 역할, 권력 등 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노년기 부부갈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5]. 그러나 노년기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자원은 감소하게 되고, 부인은 자녀의 지지, 경제적, 친구 등 이웃과의 정서적 관계, 신체적 유연성 등 자원 종류가 다원화되고 양이 많아져 부부간의 권력관계는 역

전된다[6].

특히 오늘날 남성들은 젊은 시기 직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라고 여기고 살았다. 그러나 직장도 은퇴하고 돌아 봐야할 자식도 없게 된 노년 부부는 실질적으로 결혼 이후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할 경우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 황혼이혼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의사소통 갈등, 가정생활 갈등, 공격행동 갈등, 경제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1 의사소통 갈등

의사소통이란 가족 행동의 기본적 양상으로서 가족의 목표 설정, 목표 성취, 가족 행동의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8]. 부부관계는 쌍방적인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이다[9]. 따라서 의사소통의 부조화는 부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부부 간의 의사소통 갈등은 폭언이나 폭행,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 갈등 등이 주요 요인이다. 최근에는 비록 이혼이라는 법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고 형식적인 노년기 부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이미 정서적인 이혼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부부 갈등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만큼 부부의 의사소통은 서로에게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부부만족과 부부관계 유지의 핵심이며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가정생활 갈등

가정생활 갈등은 가사노동의 분담,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 가족활동과 관련된 사항, 성격과 생활습관 및 자식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자신과 배우자의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생되는 일로서는 가사노동, 가족행사, 친구문제 등 가족과 관련된 제 3의 요인에 관한 배우자간의 갈등이다[10].

1.3 공격행동 갈등

부부관계는 애정과 폭력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이 관계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폭력은 그 자체가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로 부부 관계에서 폭력이 구조적으로 상존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폭언, 폭행으로 신체적 손상, 낮은 자존감, 무가치함,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11]. Leonard Berkowitz는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을 공격행동(aggression)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공격행동이 대상자의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의도하는 것일 때 그것을 폭력이라고 정의했다[12]. 따라서 이러한 공격행동 갈등은 노년기 결혼 지속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4 경제 갈등

노년기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부부간의 잠재적 긴장과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낮은 경제수준은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이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생애단계에서 경제 불안정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노년기이다. 이 시기에는 은퇴로 인한 소득 중단 또는 제한적인 취업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및 가족의 해체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년기 결혼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갈등은 노년기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14].

2. 생태체계

생태체계 이론은 일반체계 이론[15]에 생태학적 관점을 결합시킨 것으로 Bronfenbrenner[16]가 인간발달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생태학적 체계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개인적 우울, 가족응집성, 사회적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생태체계적 이론은 하나의 환경이 모든 인간에게 동

일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적 요인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를 가족체계, 사회체계, 개인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1 가족체계(가족 응집성)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한다. 응집성은 배우자를 독립적, 자율적 존재로 인정하며, 배우자에 관하여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느낄 수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한다. 김수연[18]은 가족의 응집도가 높을수록 명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높고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의식이 적어진다 한다.

최규련[19]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정도가 낮고, 이성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며 해동 표출, 회피 등의 대처방안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2.2 사회체계(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해 주고 위기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우울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복지와 안녕감, 자기 효능감, 정신건강을 높이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20]. 가족의 지지는 노인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21]. 친구와의 교류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이웃, 전문가(의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등의 관계가 노년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2.3 개인체계(우울)

개인체계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우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감정이 평소와 달리 가라앉고 비관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이며 부정적인 정서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을 무

가치하게 보는 것과 세상을 무의미하게 보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외부세계, 자기자신,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22]. 정은주·최기홍은 무배우자 집단이 유배우자 집단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하였다[23]. 특히, 노인 우울증과 자살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조계화·김영경[24]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 외로움, 삶의 만족도 중 우울만이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았다.

3. 황혼이혼

황혼이혼을 성영식[25]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50대 이상의 부부의 이혼, 박영애[26]는 60세 이상 부부들의 이혼이라 각각 정의하였고, 김소진[27]은 황혼이혼이라는 용어대신에 이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인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지만, 아직까지 법, 제도에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원인으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강압, 외도, 남편의 실업, 이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의 완화, 자녀의 독립, 자아실현 욕구 등 사회적, 제도적, 개인적으로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여성들이 자녀를 출가 시킨 뒤 이혼을 결정하거나 경제적 문제로 이혼을 주저했던 여성들은 1990년 ‘분할연금제도’[27]가 도입되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998년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어 가정폭력도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같이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25].

본 연구에서는 황혼이혼의 하위요인으로 황혼이혼생각, 황혼이혼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혼생각은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이혼을 하는 수단에 대한 생각까지이며,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의 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차원을 말한다. 이혼시도는 이혼생각을 넘어서는 행동적 차원을 포함하지만 실제적인 이혼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이혼에 대한 법적·경제적 정보수집,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이혼청구서 작성, 법원을 찾아가거나

이혼소송을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10].

4. 범죄충동

Patton, Stanford & Barratt[28]은 충동성을 생각 없는 행동, 성급한 의사결정, 미래보다 현재를 생각, 집중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과 같은 성향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승선[29]은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인성적 특질로서 자제력 약하며 기분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부갈등으로 인한 범죄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흥분 또는 자기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한다. 한경혜[30]에 의하면 황혼이혼보다 더 무서운 건 은퇴 후 부부갈등으로 인한 ‘분노범죄’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충동의 하위요인으로 폭력충동, 자기중심성충동, 가출충동을 선정하였다.

폭력충동은 성장기에 폭력을 경험하거나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으며, 정신병리학적 요인과 알콜, 약물 복용 등으로 음주와 우울증의 내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 부부권력과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자들이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하는 행위로 보았고, 자기중심성충동은 개인특성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 반사회적 성격, 공격성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충동적 성격이 강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가출충동은 부부간의 가출은 폭행이나 폭언, 상습적인 구타 등으로부터 일시적 회피, 영구적 도피를 위한 충동적인 행위로 보았다. 또한 노인의 범죄충동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괴감 인식, 배우자로 부터의 폭언, 배우자와 같이 있는 시간 증가로 인한 갈등 증가,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학대, 사회적 소외감에 괴로워하며, 분노감으로 발생하는 충동적 범죄로 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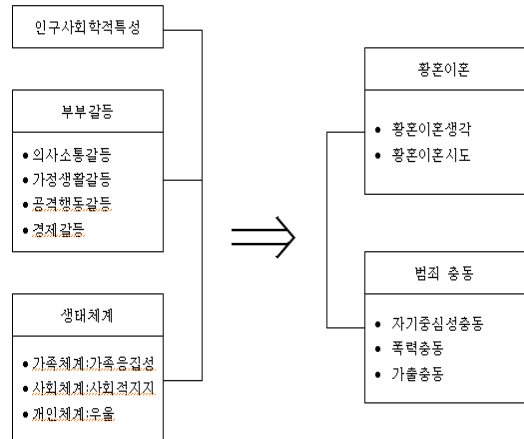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55세 이상의 기혼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350부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하고 33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분석,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를 통해서 산출하였다. 둘째, 부부갈등과 생태체계 요인들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에 어떤 독립변인들이 영향력이 크고, 설명력이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직업, 자녀동거여부, 종교,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는 t 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독립변수인 부부갈등의 하위변인으로 의사소통, 가정생활, 공격행동, 경제갈등 등으로 구분하였고, 또 다른 독립변수는 생태체계

이며 하위변인으로는 가족 응집성, 사회적 지지, 우울 등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갈등에 관련된 하위변인 4가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성희[10]가 사용한 설문 문항을 2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생태체계에 관련된 하위변인 우울, 가족응집성은 이영서[31]의 개인적 체계, 가족적 체계에서, 사회적지지는 이정분[32]의 사회적 체계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2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황혼이혼에 관한 하위변인 이혼행동, 이혼시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성희[10]이 사용한 설문 문항과 추가하여 26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범죄충동에 관련된 하위변인 3가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성진[33]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13문항을 전면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연구대상의 특성

[표 1] 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자녀와 동거여부, 종교, 건강상태, 월 평균 소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2)

범 주	하위범주	빈도(%)
성별	남성	168(50.6)
	여성	164(49.4)
연령	55-59세	162(48.8)
	60-65세	103(31.0)
	66-70세	39(11.7)
	71세 이상	28(8.5)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61(18.4)
	고등학교 졸업	121(36.4)
	대학교 졸업 이상	150(45.2)
직업	무직/주부	76(22.9)
	기술/노무직	45(13.6)
	판매/자영업	45(13.6)
	일반사무직	89(26.8)
	경영관리/전문직	38(11.4)
	농축산/기타	39(11.7)
자녀수	1명 이하	48(14.5)
	2-3명	253(76.2)
	4명 이상	31(9.3)

자녀동거 여부	함께 살지 않는다	149(44.9)
	함께 산다	183(55.1)
종교	없다	97(29.2)
	불교	77(23.2)
	기독교	95(28.6)
	천주교	37(11.2)
	유교/기타	26(7.8)
건강상태	나쁜 편이다	30(9.0)
	보통이다	151(45.5)
	건강한 편이다	151(45.5)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65(19.6)
	100-200만원 미만	68(20.5)
	200만원이상	199(59.9)

IV. 연구결과

1.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황혼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황혼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고, 2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였고, 3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를 동시에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황혼이혼이 2개의 하부요인(이혼생각, 이혼시도)으로 각각 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1 황혼이혼생각에 미치는 영향

황혼이혼생각에 대한 부부갈등과 생태체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황혼이혼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고,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과 자녀 수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이 정(+)적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의 요인이 모두 정(+)적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통계값은 10.532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t=2.670, p<.01)은 황혼이혼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의 요인은 모두 황혼이혼생각에 영향을 주었으나, 생태체계의 요인 중에서는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황혼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있어 생태체계와 비교하여 부부갈등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 간에 가정생활이나 폭력적인 공격행동, 의사소통 및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이혼에 대한 생각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차성희[10]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영역에서의 부부갈등이 높은 집단에서 이혼생각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1(부부갈등과 생태체계는 황혼이혼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2. 황혼이혼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1)	.207	3.246**	.139	2.580*	.146	2.670**
	연령	-.133	-2.293*	-.046	-.932	-.041	-.818
	학력	-.198	-2.941**	-.126	-2.190*	-.124	-2.136*
	직업2)						
	직업1	.091	1.434	.025	.468	.028	.514
	직업2	-.040	-.614	-.060	-1.090	-.054	-.983
	직업3	.067	.813	.092	1.326	.099	1.415
	직업4	.041	.553	.043	.696	.051	.806
	직업5	.096	1.463	.069	1.245	.075	1.334
	자녀수	.115	2.119*	.027	.585	.030	.626
	자녀동거여부3)	-.023	-.416	.037	.786	.040	.849
	종교4)						
	종교1	-.021	-.346	-.010	-.192	-.007	-.129
	종교2	-.056	-.894	-.048	-.918	-.039	-.710
	종교3	-.036	-.627	-.003	-.058	-.001	-.022
	종교4	.038	.666	.041	.839	.046	.906
	건강상태	-.086	-1.521	-.022	-.454	-.013	-.255
	월평균소득	-.037	-.654	-.048	-.981	-.042	-.834
	부부갈등	의사소통갈등			.269	5.933***	.251
가정생활갈등				.352	8.021***	.337	7.059***
공격행동갈등				.290	6.468***	.281	6.058***
경제갈등				.151	3.236**	.139	2.845**
생태체계	가족응집성					-.030	-.590
	사회적지지					-.008	-.165
	우울					.044	.789
F		4.653***		12.159***		10.532***	
R2		.191		.439		.440	
$\Delta R2$.248		.001	

*p<.05, **p<.01, ***p<.001

1) 성별(남성=0, 여성=1), 2)직업(무직/주부=0), 직업1(기술/노무직=1), 직업2(판매/자영업=1), 직업3(일반사무직=1), 직업4(경영관리/전문직=1), 직업5(농축산/기타=1), 3)자녀동거여부(무=0, 유=1), 4)종교(없다=0, 종교1(불교)=1, 종교2(기독교)=1, 종교3(천주교)=1, 종교4(유교/기타)=1)

1.2 황혼이혼시도에 미치는 영향

황혼이혼시도에 대한 부부갈등과 생태체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황혼이혼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고,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1과 종교4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표 3. 황혼이혼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1)	-.117	-1.785	-.165	-2.804**	-.149	-2.511*
	연령	-.173	-2.888**	-.098	-1.817	-.100	-1.833
	학력	-.090	-1.302	.010	.163	.005	.077
	직업2)						
	직업1	.058	.882	.003	.058	.002	.038
	직업2	.106	1.574	.084	1.408	.088	1.469
	직업3	-.029	-.344	-.010	-.137	.000	-.001
	직업4	-.008	-.109	.003	.041	.012	.171
	직업5	-.009	-.130	-.001	-.009	.000	.007
	자녀수	.055	.981	.021	.419	.035	.677
	자녀동거여부3)	-.178	-3.091**	-.135	-2.604*	-.127	-2.455*
	종교4)						
	종교1	.128	2.025*	.133	2.387*	.142	2.518*
	종교2	.018	.275	.018	.309	.018	.303
	종교3	.006	.100	.027	.519	.022	.421
	종교4	.228	3.883***	.173	3.239**	.161	2.948**
	건강상태	-.011	-.191	.034	.653	.036	.675
	월평균소득	.009	.152	.050	.921	.066	1.213
	부부갈등	의사소통갈등			.353	7.127***	.317
가정생활갈등				.102	2.139*	.071	1.368
공격행동갈등				.149	3.059**	.143	2.850**
경제갈등				.303	5.958***	.288	5.454***
생태체계	가족응집성					-.115	-2.081*
	사회적지지					.038	.745
	우울					.023	.383
F		3.187***		7.705***		6.987***	
R2		.139		.331		.343	
$\Delta R2$.192		.012	

*p<.05, **p<.01, ***p<.001

1) 성별(남성=0, 여성=1), 2)직업(무직/주부=0), 직업1(기술/노무직=1), 직업2(판매/자영업=1), 직업3(일반사무직=1), 직업4(경영관리/전문직=1), 직업5(농축산/기타=1), 3)자녀동거여부(무=0, 유=1), 4)종교(없다=0, 종교1(불교)=1, 종교2(기독교)=1, 종교3(천주교)=1, 종교4(유교/기타)=1)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1과 종교4가 정(+)적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의 요인이 모두 정(+)적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통계값은 6.987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 1(t=2.518, p<.05)과 종교4(t=2.518, p<.05)은 황혼이혼 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의 요인에서는 의사소통갈등, 공격행동갈등, 경제갈등이 황혼이혼 시도에 영향을 주었고, 생태체계의 요인에서는 가족체계인 가족응집성만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간에 가정생활이나 경제적인 갈등, 폭력적인 공격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이혼에 대한 시도가 높고, 생태체계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황혼이혼에 대한 시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차성희[10]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영역에서의 부부갈등이 높은 집단에서 이혼시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2(부부갈등과 생태체계는 황혼이혼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고, 2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고, 3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를 동시에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범죄충동이 3개의 하부요인(자기중심성충동, 폭력충동, 가출충동)으로 각각 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1 자기중심성충동에 미치는 영향

범죄충동의 자기중심성충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생태체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중심성충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고,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직업2은 정(+)-적 영향을 주었고, 건강상태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표 4. 자기중심성충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1)	-.032	-.474	-.078	-1.218	-.033	-.526
	연령	.021	.347	.086	1.450	.118	2.031*
	학력	-.080	-1.123	-.024	-.347	-.007	-.108
	직업2)						
	직업1	.068	1.017	.021	.325	.034	.554
	직업2	.143	2.059*	.126	1.926	.154	2.408*
	직업3	.074	.849	.088	1.062	.127	1.572
	직업4	.047	.591	.054	.731	.108	1.475
	직업5	.082	1.166	.056	.837	.090	1.387
	자녀수	.042	.731	-.021	-.375	-.013	-.231
	자녀동거여부3)	.053	.888	.078	1.383	.100	1.820
	종교4)						
	종교1	.035	.546	.042	.695	.072	1.196
	종교2	-.039	-.591	-.040	-.638	.027	.421
	종교3	.040	.646	.060	1.034	.073	1.288
종교4	.038	.629	.037	.632	.073	1.248	
건강상태	-.157	-2.603*	-.113	-1.963	-.055	-.960	
월평균소득	-.120	-1.961	-.101	-1.721	-.062	-1.065	
부부갈등	의사소통갈등			.127	2.346*	.003	.050
	가정생활갈등			.234	4.459***	.134	2.436*
	공격행동갈등			.182	3.401**	.139	2.591*
	경제갈등			.199	3.576***	.131	2.323*
	가족응집성					-.213	-3.612***
생태체계	사회적지지					-.096	-1.761
	우울					.252	3.881***
	F	1.841*		3.875***		4.594***	
R2	.086		.199		.255		
$\Delta R2$.113		.056		

*p<.05, **p<.01, ***p<.001

1) 성별(남성=0, 여성=1), 2)직업(무직/주부=0), 직업1(기술/노무직=1), 직업2(판매/자영업=1), 직업3(일반사무직=1), 직업4(경영관리/전문직=1), 직업5(농축산/기타=1), 3)자녀동거여부(무=0, 유=1), 4)종교(없다=0, 종교1(불교)=1, 종교2(기독교)=1, 종교3(천주교)=1, 종교4(유교/기타)=1)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지 않았다. 부부갈등의 요인에서는 모두 정(+)-적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통계값은 4.594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령(t=2.031, p<.05)과 직업2(t=2.408, p<.05)이 자기중심성충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의 요인에서는 가정생활갈등, 공격행동갈등, 경제갈등이 자기중심성충동에 영향을 주었고, 생태체계의 요인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우울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

한 갈등, 경제적인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중심성충동이 높아지지만,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자기중심성충동은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1(부부갈등과 생태체계는 자기중심성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2 폭력충동에 미치는 영향

범죄충동의 폭력충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생태체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폭력충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고,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직업1과 자녀수가 정(+)적 영향을, 연령, 학력, 자녀동거여부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표 5. 폭력충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1)	-.116	-1.781	-.151	-2.583*	-.149	-2.569*
	연령	-.205	-3.460**	-.129	-2.410*	-.128	-2.405*
	학력	-.184	-2.688**	-.112	-1.803	-.097	-1.580
	직업2)						
	직업1	.137	2.316*	.088	1.512	.078	1.364
	직업2	.049	.740	.033	.551	.017	.288
	직업3	-.110	-1.306	-.078	-1.035	-.100	-1.349
	직업4	-.059	-.779	-.049	-.725	-.032	-.474
	직업5	-.096	-1.422	-.092	-1.521	-.100	-1.672
	자녀수	.127	2.289*	.083	1.646	.059	1.183
	자녀동거여부3)	-.141	-2.484*	-.098	-1.917	-.094	-1.867
	종교4)						
	종교1	.041	.664	.045	.805	.079	1.428
	종교2	-.007	-.107	-.008	-.146	.021	.363
종교3	.003	.057	.029	.542	.036	.687	
종교4	.003	.056	-.049	-.928	-.028	-.533	
건강상태	.092	1.583	.138	2.652**	.140	2.667**	
월평균소득	.008	.141	.031	.578	.027	.504	
부부갈등	의사소통갈등			.345	7.017***	.315	5.856***
	가정생활갈등			.234	4.919**	.223	4.421***
	공격행동갈등			.074	1.523	.104	2.123*
	경제갈등			.217	4.310**	.238	4.613***
생태체계	가족응집성					-.077	-1.432
	사회적지지					-.159	-3.185**
	우울					-.082	-1.387
F		3.721***		8.066***		8.029***	
R2		.159		.342		.375	
ΔR2			.183		.033		

*p<.05, **p<.01, ***p<.001

1) 성별(남성=0, 여성=1), 2)직업(무직/주부=0), 직업1(기술/노무직=1), 직업2(판매/자영업=1), 직업3(일반사무직=1), 직업4(경영관리/전문직=1), 직업5(농축산/기타=1), 3)자녀동거여부(무=0, 유=1), 4)종교(없다=0), 종교1(불교=1), 종교2(기독교=1), 종교3(천주교=1), 종교4(유교/기타=1)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연령은 부(-)적 영향을, 건강상태는 정(+)적 영향을 주었다. 부부갈등 요인에서는 의사소통갈등, 가정생활갈등, 경제갈등이 폭력충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통계값은 8.029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t=-2.569, p<.05)과 연령(t=-2.405, p<.05)이 부(-)적 영향을, 건강상태(t=2.667, p<.01)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폭력충동에 대해 부부갈등의 의사소통갈등(t=5.856, p<.001), 가정생활갈등(t=4.421, p<.001), 공격행동갈등(t=2.123, p<.05), 경제갈등(t=4.613, p<.001)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생태체계의 사회적지지(t=-3.185, p<.01)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갈등이 높을수록 폭력충동이 높아지지만, 친구나 전문가 등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폭력충동이 보다 낮아지고 있었다. 김수연·김득성[34]은 의사소통갈등과 공격행동, 경제갈등이 높은 부부가 폭력이 심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2(부부갈등과 생태체계는 폭력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3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범죄충동의 가출충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생태체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출충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고,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직업3과 직업4, 자녀수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은 부(-)적 영향을, 직업3과 직업4는 정(+)적 영향을 주었다. 부부갈등 요인에서는 의사소통갈등, 가정생활갈등, 공격행동갈등이 정(+)적 영향을 주었다.

표 6.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1)	.139	2.091*	.109	1.668	.114	1.708
	연령	-.175	-2.884**	-.138	-2.291*	-.139	-2.268*
	학력	-.067	-.959	-.030	-.428	-.032	-.457
	직업2)						
	직업1	.048	.728	.020	.304	.020	.302
	직업2	-.002	-.032	-.011	-.159	-.009	-.131
	직업3	.172	2.007*	.184	2.186*	.188	2.202*
	직업4	.230	2.969**	.230	3.032**	.232	3.001**
	직업5	.117	1.693	.113	1.671	.114	1.655
	자녀수	.142	2.508*	.112	1.971	.117	2.023*
	자녀동거여부3)	-.021	-.354	.012	.216	.014	.249
	종교4)						
	종교1	.064	1.000	.069	1.102	.070	1.097
	종교2	-.009	-.142	-.004	-.063	-.005	-.083
	종교3	.084	1.397	.099	1.678	.097	1.632
종교4	-.024	-.407	-.031	-.519	-.035	-.574	
건강상태	-.081	-1.364	-.054	-.921	-.054	-.885	
월평균소득	-.063	-1.048	-.070	-1.167	-.065	-1.068	
부부갈등	의사소통갈등			.168	3.045**	.159	2.566*
	가정생활갈등			.119	2.235*	.111	1.910
	공격행동갈등			.127	2.336*	.124	2.200*
	경제갈등			.058	1.023	.053	.893
생태체계	가족응집성					-.030	-.478
	사회적지지					.019	.324
	우울					.009	.138
F		2.616**		3.135***		2.720***	
R2		.117		.168		.169	
$\Delta R2$.051		.001	

*p<.05, **p<.01, ***p<.001

1) 성별(남성=0, 여성=1), 2)직업(무직/주부=0), 직업1(기술/노무직=1), 직업2(판매/자영업=1), 직업3(일반사무직=1), 직업4(경영관리/전문직=1), 직업5(농축산/기타=1), 3)자녀동거여부(무=0, 유=1), 4)종교(없다=0), 종교1(불교=1), 종교2(기독교=1), 종교3(천주교=1), 종교4(유교/기타=1)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 요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통계값은 2.720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령 (t=-2.268, p<.05)이 부(-)적 영향을, 직업3(t=2.202, p<.05), 직업4(t=3.001, p<.01), 자녀수(t=2.023, p<.05)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가출충동에 대해 부부갈등의 의사소통갈등(t=2.566, p<.05), 공격행동갈등(t=2.200, p<.05)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생태체계의 요인 중에서는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높을수록 가출충동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3(부부갈등과 생태체계는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 생태체계,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자녀동거여부,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종교,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에 따른 부부갈등, 생태체계,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의 차이를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법으로 사후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3.1 부부갈등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일반사무직과 경영관리/전문직, 농축산/기타보다 기술/노무직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서, 유교/기타에서, 건강이 나쁜 편에서, 100~200만원 미만에서 부부간 의사소통갈등이 더 높았다.

가정생활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일반사무직과 경영관리/전문직보다 기술/노무직에서, 자녀수가 1명이하, 2~3명에 비해 4명이상에서,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건강이 나쁜 편에서, 100~200만원 미만에서 부부간 가정생활갈등이 더 높았다.

공격행동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71세 이상에 비해 다른 연령층에서,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기술/노무직에서, 자녀 4명이상에서, 자녀와 안 사는 경우에서, 건강이 나쁜 편에서, 100~200만원 미만에서 부부간 공격행동에 의한 갈등이 더 높았다.

경제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고졸에서, 기술/노무직에서, 자녀 4명이상에서, 건강이 나쁜 편에서,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에서 부부의 경제적 갈등이 더 높았다. 이는 성별, 경제수준, 종교, 자녀수, 질환여부 등이 부부갈등이 높다[10]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부부갈등의 모든 요인의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과 학력, 직업,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1(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부갈등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은 부분 채택되었다.

3.2 생태체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태체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성은 중졸이하와 고졸에 비해 대졸이상에서, 기술/노무직보다는 경영관리/전문직에서,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동거하는 경우에서, 유교/기타에 비해 불교와 기독교에서,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보통보다는 건강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에 비해 200만 원 이상에서 가족응집성이 더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중졸이하와 고졸에 비해 대졸이상에서, 기술/노무직보다는 농축산/기타에서, 자녀수가 4명 이상에 비해 1명 혹은 2~3명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는 기독교에서, 건강상태가 나쁜 편에 비해 보통 혹은 건강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보다 200만 원 이상에서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다.

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71세 이상에 비해 60~65세에서, 대졸이상보다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일반사무직과 경영관리/전문직, 농축산/기타에 비해 무직/주부와 기술/노무직에서,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종교가 기독교와 천주교에 비해 없다와 불교에서,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보다 보통과 나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만원미만과 100~200만원미만에서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생태체계의 모든 요인의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력, 직업, 종교,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2(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태체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3.3 황혼이혼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황혼이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황혼이혼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71세 이상에 비해 다른 연령층에서, 대졸이상과 고졸에 비해 중졸이하에서, 일반사무직과 판매/자영업, 경영관리/전문직, 농

축산/기타보다 기술/노무직에서, 자녀수가 1명이하와 2~3명에 비해 4명이상에서,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와 기독교, 천주교에 비해 유교/기타에서,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보다 나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200만원미만에서 황혼이혼생각이 더 높았다.

황혼이혼시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71세 이상에 비해 다른 연령층에서, 대졸이상과 고졸에 비해 중졸이하에서, 일반사무직과 경영관리/전문직보다 기술/노무직에서, 자녀수가 1명이하와 2~3명에 비해 4명이상에서,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종교가 없거나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 비해 유교/기타에서,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보다 나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200만원미만에서 황혼이혼시도가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황혼이혼의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연구가설 3-3(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황혼이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3.4 범죄충동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충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중심성충동은 학력이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에서, 일반사무직과 경영관리/전문직보다 기술/노무직에서, 자녀수가 1명이하, 2~3명에 비해 4명이상에서, 건강상태가 보통과 건강한 편보다 나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미만과 2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200만원미만에서 자기중심성충동이 더 높았다.

폭력충동은 연령이 71세 이상보다는 60~65세에서,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일반사무직과 경영관리/전문직, 농축산/기타보다 기술/노무직에서, 자녀수가 1명이하, 2~3명에 비해 4명이상에서,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건강상태가 보통이나 건강한 편에 비해 나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200만원미만에서 폭력충동이 더 높았다.

가출충동은 연령이 71세 이상에 비해 다른 연령층에

서, 대졸이상보다 중졸이하에서, 자녀수가 1명이하와 2~3명보다 4명이상에서,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에 비해 나쁜 편에서,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에 비해 100~200만원미만에서 가출충동이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범죄충동의 모든 요인의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력, 자녀수,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4(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범죄충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황혼이혼 및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가 황혼이혼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은 황혼이혼 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 요인은 모두 황혼이혼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생태체계 요인 중에서는 영향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부 간에 가정생활이나 폭력적인 공격행동, 의사소통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에 대한 생각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가 황혼이혼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는 황혼이혼시도에 정적이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 요인은 의사소통갈등, 경제갈등, 공격행동갈등, 가정생활갈등이 이혼시도에 영향을 주었다. 생태체계 요인 중 가족체계 가족응집성만이 부적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부 간에 가정생활이나 경제적인 갈등, 폭력적인 공격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심할수록 황혼이혼에 대한 시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가 자기중심성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과 직업이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 요인은 가정생활갈등, 공격행동갈등, 경제갈등이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생태체계 요인 중에서는 가족체계인 가족응집성만이 영향을 미

쳤다.

이에 따라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중심성충동이 높아지지만,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자기중심성충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가 폭력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상태가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 요인은 모두 폭력충동에 영향을 주었다. 생태체계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부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갈등이 높을수록 폭력충동이 높아지지만, 친구나 전문가 등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폭력충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부부갈등, 생태체계가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업과 자녀수가 가출충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갈등 요인은 의사소통갈등, 공격행동갈등이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생태체계 요인 중에서는 영향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의 갈등과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높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의사소통갈등, 가정생활갈등, 공격행동갈등, 경제갈등), 생태체계(가족응집성, 사회적지지, 우울), 황혼이혼(황혼이혼생각, 황혼이혼시도), 범죄(자기중심성충동, 폭력충동, 가출충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연구는 노년기의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또는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사소통, 가족 응집성, 자아존중감, 경제적 갈등 등의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고령화와 더불어 평균 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노년기 부부갈등과 생태체계가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변인들을 다차원적인 접근법으로 연구를 시도한 점과 최근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으로 인한 자살, 범죄 등의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는 노인에 대한 각종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황혼이혼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할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부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상호 친밀한 관계를 위해 부부 소통법, 배우자 매력찾기, 부부교육 등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운용되어야 하며, 또한 질병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대비 질병 예방교육과 주기적인 건강 검진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오랜 결혼생활 동안에 가사 일, 자녀문제, 집안 대소사 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부 상호간의 고착화된 언어적 환경 개선, 가부장적 권위 탈피 등의 노력으로 양성 평등의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부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갈등문제나 이혼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포괄 지원센터(상담전화, 119서비스, 가정 폭력상담소 등)에 배치하여 기동방문 상담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황혼이혼을 선택한 상당수가 자신의 삶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경제적 지원, 법적 보호, 일자리 지원 등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황혼이혼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이혼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 하다가 절망감에 자살, 생계형 범죄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은퇴 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전관리와 재테크로 경제적인 노후준비,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취업알선, 생계비 지원, 주택 지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노인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예방교육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인에 대한 범죄 예방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범죄 예방 프로그

램 운영, 범죄 상담, 출소자 관리 등 지역사회 연계 노인 사회복지시설에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범죄의 원인 중 갈등과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의 동기를 볼 때 노인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장소를 지역 사회복지 시설 내 확대 설치해야 하며, 노인 상담전문가를 양성 배치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노인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자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 알선 및 제공, 노인 복지혜택, 무료 전문기술 습득 프로그램, 정년 연장 등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범죄를 지지를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정부의 정책발진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밝힌다. 첫째, 연구대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기혼 노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의 전반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때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추후 부부를 대상으로 쌍방향 의견을 접수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질적 연구의 병행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세계보건통계, 2013.
- [2]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2.
- [3]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6호, pp.117-133, 2000.
- [4] 송성자, “한국 가족문화와 가족치료 전략”, *한국 사회복지논집*, 제6권, pp.105-122, 2002.
- [5] 이선미,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6] 변화순, “노인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pp.33-70, 1999.
- [7]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p.80, 2012.
- [8] L. Gross, “Sol Worth and the study of visual

- communications," Vol.6, No.3, pp.2-19, 1980.
- [9] 김명희, 최연실,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 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권, 제3호, pp.1-23, 2007.
- [10] 차성희, 노년기 부부갈등이 이혼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11] 김승용, 노인 부부 폭력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12] 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가정폭력 노출 아동 문제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복지적 대책", 가족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6.
- [13] 권오곤, 허준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7권, pp.7-29, 2010.
- [14] 정연표, 노년기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5] V. Bertalanffy, *General System Theory*, New York, Braziller, 1968.
- [16]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e*, 1979.
- [17] 최신애,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6호, pp.265-279, 2012.
- [18] 김수연, 부부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9] 최규련,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6호, pp.99-113, 1995.
- [20] 김영주, "농촌노인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6권, pp.77-104, 2009.
- [21] 김정엽, 이재모, "노인의 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연구, 제48권, pp.7-30, 2010.
- [22] 노병일, 모선희,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7권, 제1호, pp.53-69, 2007.
- [23] 정은주, 최기홍,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제18권, 제1호, pp.17-31, 2013.
- [24] 조계화, 김영경, "한국노인의 우울, 자살 생각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76-187, 2008.
- [25] 성영식,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6] 박영애, 여성노인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7] 김소진,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1087-1105, 2009.
- [28] J. H. Patton, M. S. Stanford, and E. S. Barratt,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i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1, pp.768-774, 1995.
- [29] 이송선,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30] 채널A, "한혜경의 100세 시대-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남자들 분노", 2012년12월12일.
- [31] 이영서, 사별노인의 생태체계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2] 이정분,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3] 주성진, 부모의 범죄성향이 자녀의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4] 김수연, 김득성,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1.

저 자 소 개

강 신 성(Sin-Sung Kang)

정회원



- 1995년 ~ 2001년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평생교육, 심리상담, 리더십

임 왕 규(Wang-Kyu Lim)

정회원



- 2010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기술경영, 경영공학, 사회적기업,
실버산업